

5만7천명 찾은 ‘광주김치축제’ 매출 10억 돌파 ‘역대 최대’

전년비 26.7% ↑ ...미식도시 위상 강화

광주 지역 경제 회복 견인차 역할 톡톡

‘광주김치축제’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며 지역 경제 회복의 견인차로 자리매김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11월2일까지 광주시청 일원에서 열린 ‘제32회 광주김치축제’에 5만7천여명이 방문해 총 10억3천8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6.7% 증가한 수치로 축제의 경제 효과와 한층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축제는 ‘우수최광(光) 김치파티’를 주제로 열렸으며 시청 앞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해 김치마켓과 농산물마켓을 전면에 배치하고 방문객 동선을 효율적으로 설계해 편의성을 높였다. 그 결과, 시민과 관광객, 입점 업체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김치마켓은 첫날부터 긴 줄이 이어지며 인기를 끌었다. 대통령상 수상 김치, 전통시장 김치, 품질인증 김치 등은 조기 매진되는 등 호응을 얻었다.

이번 축제는 유명 가수 공연 대신 천인의 밥상, 김치마켓, 푸드쇼 등 대표 프로그램을 강화해 내실 있는 콘텐츠를 구성했다.

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참여 확대, 문화누리카드 사용 등으로 실질적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 행사 기간 동안 김치팝업과 대통령상 수상자 전시, 대한민국명장 ‘안유성쇼’, 대통령상 김치명인 마스터 클래스, 김치놀이, 김치체험 등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이와 함께 청년상인 공동 판매전, 소금체험관, 소금진흥연구센터의 천일염 이력제, 오후

기 팝업, 공무원 문화축제, 달빛 합동공연 등 전국 기관·단체가 참여하며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한편, 첫날 예정됐던 ‘K-김치파티’는 인근 화재로 인한 연기 유입으로 시민 안전을 고려해 조기 종료됐다.

광주시는 축제 기간 동안 광주의 대표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K-미식벨트 특별코스(김치타운-양동시장-광주김치축제)’를 운영해 외부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미식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였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올해 축제는 실질적 경제 효과와 지역 상생의 가치를 동시에 보여준 축제였다”며 “광주만의 고유한 김치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구례 화엄사 석등 복원 5일 오후 구례 화엄사에서 열린 국보 12호인 각형전 앞 석등 복원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석등을 점등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국보인 석등에서 균열과 파손이 확인됨에 따라 2023년 5월 부분 해체 보수를 시작한 뒤 약 3년 만에 복원 공사를 마무리했다. 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등은 높이 6.4m로 우리나라에 남은 석등 중 가장 큰 규모다. /연합뉴스

전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천305원

노동부 최저임금 대비 1천985원 많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4위 수준

전남도는 5일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6년 적용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2천305원(월 25만1천745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4위 수준으로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천985원 높은 금액이다.

2025년 생활임금은 2025년(1만930원)보다 375

원 인상된 금액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자의 근로 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액은 올해(249만3천370원)보다 7만8천375원 증가했다.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 경영계, 학계 전문가들이 2026년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유사 근로자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다양한 의견을 깊이 있게 논의 후 결정됐으며 2026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전남도와 도의회, 전남도 산하 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전남도에서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며 인건비 보조를 받는 민간 기관·단체에 소속된 근로자다. 지방

공무원법 적용자와 공공근로 등 국가 동일 임금 체계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남도의 생활임금 인상이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정부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다양한 여가·문화 생활 보장을 위해 2015년 10월 ‘전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11년째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김재정기자

광주관광공사, 인도 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

‘스탑오버’ 홍보·해외시장 공략 시도

광주관광공사는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최근 인도 유명 인플루언서 3명을 초청해 광주를 홍보하는 팸투어를 운영했다. <사진>

이번 팸투어는 한국관광공사 뉴델리지사 및 광주전남지사 등 주요 기관과의 협업 프로젝트로 추진됐으며 ‘인천공항-광주-전남 스탑오버(Stop-over) 상품’ 홍보를 주제로 진행됐다.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인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광주·전남을 환승 관광지로 홍보하고 향후 인도 시장을 겨냥한 신규 관광상품 개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참가 인플루언서들은 팔로워 합계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SNS 크리에이터들로 이 중 한 명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283만명을 보유한 인기 인플루언서다.

이들은 1박2일 일정 동안 광주의 대표 관광지와 문화자원을 다양하게 체험했다.

주요 일정으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시 관람, 전일빌딩245 투어, 양림역사문화마을 근대대상제현, 양림평민마을 및 역사문화마을 관람 등이 진행됐다.

인플루언서들은 광주의 근대문화유산과 예술 콘텐츠, 시민과 어우러진 도시 풍경을 중심으로 영상·사진 콘텐츠를 제작해 SNS에 게재



할 예정이다.

광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인도는 한류 콘텐츠 확산과 항공 노선 다변화로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며 “팸투어를 통해 광주가 인도 관광객의 ‘스탑오버 목적지’로 인식될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순천시 ‘전남 벤처·스타트업 페스티벌’

오늘부터 이틀간 창업·기업 지원 컨설팅

전남도는 6·7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제1회 전남 벤처·스타트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페스티벌은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기회 창출의 장을 마련하고 창업기업 간 네트워킹을 통해 상호 협력과 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벤처·창업의 도전과 모험, 전남이 혁신을 스타트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남 지역 벤처창업기업, 예비창업자, 투자자, 대학생 등 3천여명이 참여한다.

개막식을 비롯해 5개 분야 60개 부스 전시, 창업·기업 지원 컨설팅 4개 프로그램(500개 이상),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Startup Campus), 오픈이노베이션, 창업 컨설팅, 투자자 미팅, 창업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개막식에는 주요 내빈과 벤처창업 기업인, 예비 창업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 의지를 다짐 예정이다.

서은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전남 벤처·스타트업 페스티벌이 창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남 창업기업도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도민과 기업이 참여해 서로 협력하고 성장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광주시 ‘여성폭력 추방’ 합동캠페인

광주시는 ‘여성폭력 추방주간’(11월25일-12월1일)을 맞아 5일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광장에서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 존중이 빛나는 사회’를 주제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광주시를 비롯해 광주자치경찰위원회, 광주경찰청, 조선대학교 인권센터, 광주노동권익센터, 광주청년센터, 광주YWCA 통합상담지원센터, 광주여성인권상담소, 사단법인 실로암 등 9개 기관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디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스톱킹,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참여형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변은진 기자

자비나눔의 원력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제22회 쌀 나눔 및 제16회 지장행자 사경 및 봉사상 연꽃상 시상식

2025년 12월 5일(금) 오후2시 | 소원정사부처님 전에서

불자 여러분!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1,500분의 어렵고 힘든 부처님들을 위해 함께 정성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쌀 한 포대가 어려운 부처님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접수기간 10월 13일 ~ 11월 30일까지이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청명도계 합장



대한불교조계종 소원정사 연꽃향기 자비나눔본부

문의 및 접수 : 062-366-3332